

지방교회 탐구④

“예장통합 교단 신앙고백 적극 동의” 폐쇄적인 과거 벗고 연합운동 지향

1. 삼분설과 신비주의
일각에서는 워치만 니와 워트니스 리가 '인간 삼분설'을 주장하고 가르침에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있으며, 성경을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이분설을 지지하는 쪽에서 본다면 삼분설(살전 5:23, 히 4:12)에 다소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음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이 주제는 이단성을 가릴 만한 핵심 진리는 아니다. 칼빈 신학교에서 오래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안토니 후크마의 경우 장로교인이지만 '삼분설 뿐 아니라 이분설도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개혁주의 인간론, 347쪽). 따라서 이 문제는 좀 더 깊은 포용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워치만 니와 워트니스 리가 해당 진리 자체가 다소 신비스러운, 십자가를 짊(마16:24), 그리스도의 삶(갈 2:20), 그리스도의 몸(엡 4:12) 등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이 형제회 배경을 가졌고 성경본문 주석서를 펴내기도 했는바 신비적인 체험만을 추구하는 소위 신비주의자들은 아니다. 또한 "성경을 영해한다"라고 보일만한 곳이 혹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글자 그대로의 해석이 터무니없고 부적절할 때만 그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워트니스 리,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 60-61쪽)라는 나름대로의 원칙을 가지고 성경 해석에 임함으로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2. 양태론 시비
최근 10여년 동안 "(지방)교회는 양태론을 믿으니 이단이다"라는 말이 있어 왔다. 그러나 과거에 (지방)교회 측과 통합교단 토론자와 가졌던 토론 과정 등을 진지하게 지켜본 이들은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 (지방)교회는 양태론을 믿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오해가 생긴 것일까?

우선 통합교단 헌법은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 뿐이시다(신 6:4, 고전 8:4,6)"라고 고백하나 통합측 토론자는 "세 영들" 또는

"세 사람들"식의 "세 분 하나님"을 주장함으로 하나님을 '세 인격, 한 분'으로 믿는 (지방)교회 측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워트니스 리가 이사야 9장 6절,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을 본문 그대로 가르침으로 인해 오해가 생겼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구원의 경륜 과정에서 삼위일체의 두 위격 사이의 '기능적인 동일시' 일뿐 결코

패산티노가 이들과 진지한 대화 후 최근에 태도를 바꾸었다. 즉 "(지방)교회에서 말하는 삼위일체가 진리상 아무 문제없다"라고 미국교계 앞에 공개선언을 한 바 있다.

3. 교회론 관련 논란
지방교회는 "교회가 시대와 지역과 종족과 인간의 계급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명시한 통합교단 헌법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교회론 핵심

졌다. 물론 그들 중에는 신학을 한 경우와 세속 직업 없이 전 시간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경우도 있다. 또한 "그 지방의 모든 성도는 다 한 장소에 모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말도 오해인 것으로 강조한다. '서울 교회'만 해도 현재 23개 장소에서 모이고 있다.

워치만 니와 워트니스 리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바울의 권면에 따라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대해 많은 영적 자료들을 남겼다. 그들이 주께 받은 이러한 빛과 체험들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성도의 견인을 강조하는 개혁신학과 상호보완된다면 한국 교계에 큰 유익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교회 측은 그동안 타교단과의 관계에서 다소 폐쇄적이었던 과거의 자세를 반성하고 건강한 복음 안에서 에큐메니칼 정신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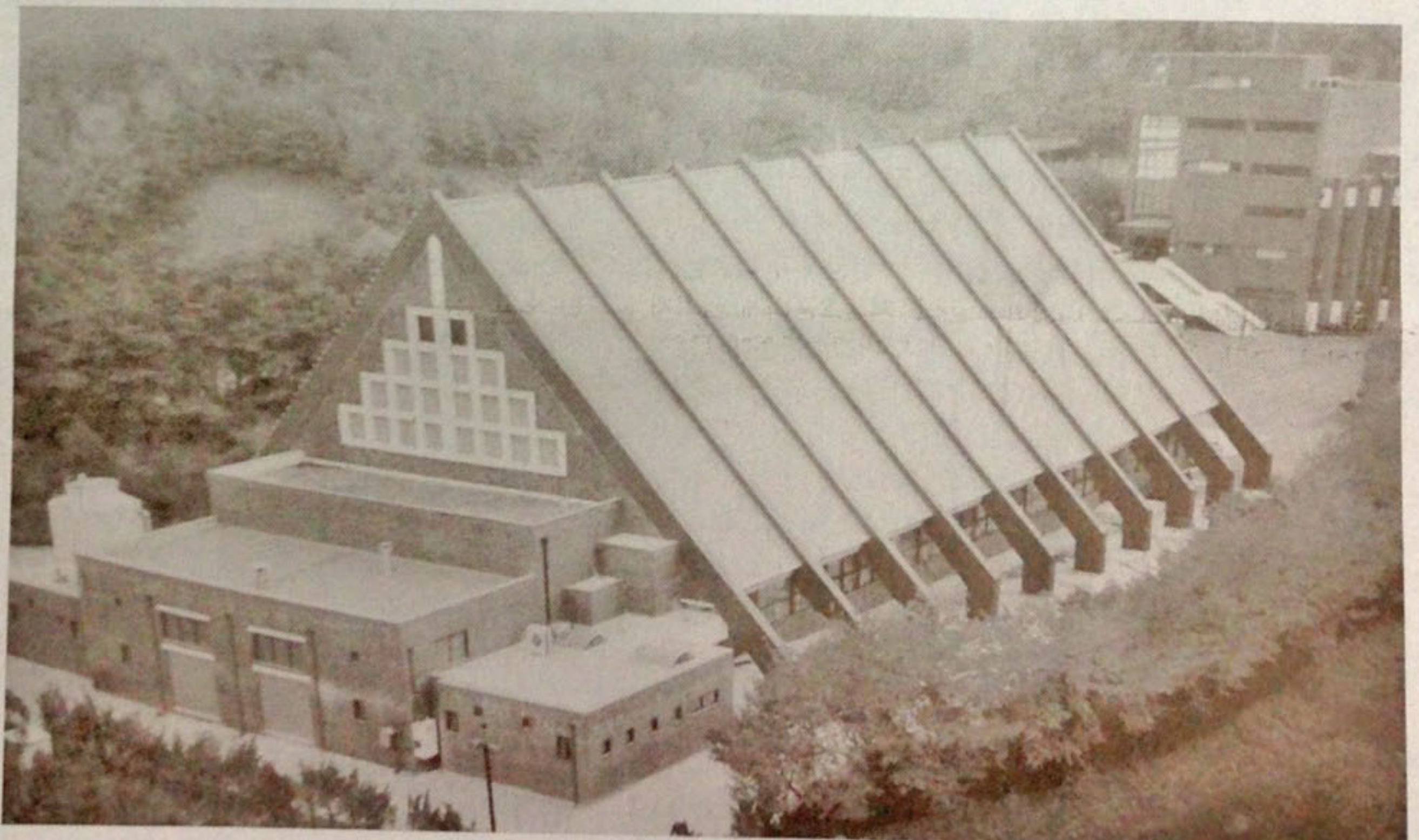
/끝

미국 CRI "삼위일체 문제없어"

'본체론적 위격의 혼동'을 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R. B. 개핀 교수와 합동 신학대학원 박형용 박사도 장로교인이지만 이점을 잘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차영배, 성령론(구원론부교재), 59-60쪽, 신학지남, 1978년 봄호, 28-39쪽).

수년 동안 (지방)교회를 양태론자로 오해했던 미국의 저명한 이단변증단체인 CRI 대표 헵크해나그라프와 Answers In Action 대표 그레첸

내용에 대해서는 쌍방 간에 전혀 이견이 없다. 소위 "지방 입장을 말함으로 다른 단체들은 교회도 아니고 그 안에는 구원도 없다. 라고 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거듭난 사람은 누구든 교회의 일원이며 구원은 각 개인이 믿음으로 받기 때문이다. 목사 제도를 부인한다는 소문이 기성 교회 목회자들을 언짢게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방)교회 내에도 전국에 200여 명의 인도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



▲ 지방교회 성도들이 성경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역원 전경